(一)(般)(論)(叢)

우리나라 貿易의 어제와 오늘, 그 展望

白 璜 鉉
<韓國輸出振興株式會社 業務部>

目 次

(1) 序 論
(2) 60年代 以前의 우리나라 貿易推移
(3) 60年代의 우리나라 貿易成長
(1) 輸出入 動向과 貿易收支
(2) 韓國 輸出商品 構成의 動向
(3) 地域別 輸出動向
(4) 世界 貿易에 있어서 한국 輸出의 位置
(5) 結 論
(4) 70年代의 우리나라 貿易의 座標
(1) 概 要
(2) 3次5個年經濟開發計劃
(3) 美國·中共의 接近
(4) 結 論

(1) 序 論

우리나라 무역의 60년대는 한마디로 말하여 70年代의 飛躍을 위한 基盤을 확고히 한 연대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輸出年間 목표인 10億弗을 0.4% 초과한 US $ 1,003,808千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第1次經濟開發5個年計劃이 실시되던 62년도의 실적 US $ 5,702千을 기준으로 한 輸出指數는 1,770.3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 8年間에 무려 17.7倍나 증가하였고 同期間中 年平均 實績增加率은 42.2%라는 놀라운 신장을 지속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70년도중의 輸入實績 US $ 1,984百萬은 前年度의 260%보다 70%나 감소한 190%로 入超率을 하락시켰고 貿易赤字額 또한 前年度보다 US $ 187百萬감소시켜 貿易收支가 괄목하게 개선되었다.

이는 또한 60년대 9년간의 全世界 輸出 年平均 增加率이 9%에 미달하였으며 先進工業國家는 9.6%, 開發途上國家는 평균 6.7%의 輸出增加率를 나타내었으며 그중 제일 높은 輸出伸張率을 보인 先進國 日本이 지난 9年間에 年平均 15.6%의 輸出增加率을 보인데 비하여 開發途上國家에서는 臺灣의 지난 9년간 23.5%신장률이 고작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의 60년대 輸出入의 발전은 놀라운 정도의 신장이었음이 틀림없다.

이는 第1, 2次經濟開發5個年計劃을 성공적으로 이끈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세계의 先進國 및 後進國들과 금후 輸出伸張을 더욱 크게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여 주었다는데 큰 意義를 찾을 수 있는 것이며, 때문에 70年代는 우리나라의 수출입의 비약적인 발전을 60년대의 터전 위에서 반드시 이룩하지 않으면 안될 연대라고 하겠다.

70년대의 우리나라의 경제는 72년부터 시작하는 3次經濟開發計劃을 완성하는 시기로서 이의 성공적인 수행으로서만이 上位 中進國으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上位 中進國에의 完成! 이는 우리 전체 국민의 열망이며,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大韓民國

의 앞날이 가름되는 실로 중대한 과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上位中進國으로의 길이 60년대에 터전을 닦았다하여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왜냐 하면 1, 2次經濟開發計劃에 의거 도입한 借款의 元利金을 상환하여야 하며, 또 나아가서는 東西의 解氷무드를 타고, 不景氣의 國際經濟가 活路를 찾아 中共과의 교류를 개시한 것이라든가 머지않아 英國을 포함한 EFTA國家가 EEC에 가입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輸出政策에 어려움을 더해주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데 이 어려운 與件을 어떻게 극복하여 76년도에 輸出 35億 1千萬弗을 달성하여 소비가 社會의 美德이 되는 豊饒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하는 점이다.

이에는 여러가지 方法論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現經濟與件으로서는 첫째 1次, 2次 經濟開發計劃에 의거 실시된 未完成 사업을 經營, 技術 등 제방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완성하는 일이며,

둘째 지금까지 輕工業 상태에서 重化學工業에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하며,

세째는 量보다도 質을 향상시키는 企業經營의 合理化, 技術의 高度化를 기하는 것이 初眉의 急先務가 아닌가 한다.

本考에서는 60年代 이전 및 60年代 이후의 우리나라의 輸出의 成長과정을 훑어 보고, 3次5個年計劃을 중심으로 하여 70년대 우리나라 수출政策을 急變하는 國際情勢와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고저 한다.

(2) 60年代 以前의 우리나라의 貿易推移

60년대의 貿易成長을 관찰하기 위하여 우선 해방이후 1959년까지의 우리나라 貿易推移를 간단히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관찰할 때 貿易은 比較優位를 근거로 하여 그 輸出供給의 방향이 결정되고 한편 그 輸入需要는 所得의 크기와 가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貿易이 正常的으로 즉 合理的인 經濟的 계산위에서 이루어 질때는 그것은 貿易兩當事國의 國民所得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지리적인 거리에 反比例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나 1945년 해방후 1959년까지의 우리나라 무역은 이상과 같은 定石과는 判異한 발전을 하여 왔다. 한마디로 말하여 援助依存的인 對美偏重貿易의 時代라고 할수 있으며 따라서 이는

<表 1> 輸出入貿易總括 (單位：千弗)

	輸出		輸入					
					援助		政府	
	金額	前年比	金額	前年比	金額	輸入金額에 대한 比重	金額	輸入金額에 대한 比重
1946	3,541		60,721		49,496	81.5	49,496	81.5
47	26,804	656.96	232,615	283.09	199,899	85.9	190,853	82.0
48	22,260	—17.0	208,003	10.6	175,592	84.4	188,320	90.5
49	13,804	—38	132,775	—63.8	116,399	87.7	—	—
50	29,444	113.3	47,741	—36.0	44,845	93.9	—	—
51	15,569	—47.1	155,337	225.4	129,221	83.2	6,019	3.9
52	27,733	78.1	214,953	38.4	161,323	75.1	24,537	11.4
53	39,585	42.7	345,436	60.7	191,806	55.5	68,000	19.7
54	24,246	—38.7	243,327	—29.6	149,401	61.4	—	—
55	17,966	—25.9	341,416	40.3	242,787	71.1	185,319	54.3
56	24,595	36.9	386,063	13.1	319,897	82.9	209,851	54.5
57	22,202	—9.7	442,174	14.5	374,026	84.6	230,702	52.3
58	16,451	—25.9	378,165	—14.5	310,976	82.2	161,954	42.8
59	19,162	16.5	291,709	22.9	210,742	72.2	49,643	17.0

註：1949~1951年은 民間貿易 外國원조의 合計
資料：1946~1951 産銀 産業經濟 10年史

<表 2>

1950年代의 主要輸入商品 (1950~1959)

단위 : 1950~1954 百萬圜 / 1955~1959 千弗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밀	—	—	—	—	1,110	15.76	3,046	13.62	1,077	3.88	4,188	1.23	12,367	3.20	27,328	6.18	26,362	6.97	14,494	4.87
쌀	—	—	—	—	1,218	17.29	3,186	14.24	173	0.62	14	—	30	0.01	34,722	7.85	527	0.14	—	—
보 리	—	—	—	—	431	6.12	1,930	8.63	149	0.54	258	0.08	17,808	4.61	18,763	4.24	18,464	4.88	—	—
원 당	0.1	0.19	37.6	3.09	233	3.31	1,124	5.02	1,326	4.77	1,949	0.57	—	—	5,124	1.16	6,833	1.81	5,273	1.81
술	—	—	11.6	0.95	284	4.03	712	3.18	1,330	4.79	5,798	1.70	5,285	1.37	5,393	1.22	4,104	1.09	—	—
生 고 무	1.7	3.26	224.8	18.45	95	1.35	306	1.37	—	—	1,630	0.48	4,932	1.28	3,871	0.88	4,463	1.18	6,653	2.28
목 재	—	—	—	—	—	—	—	—	—	—	4,134	1.21	8,775	2.27	7,445	1.68	11,053	2.92	6,385	2.19
羊 毛	—	—	—	—	—	—	—	—	—	—	69	0.02	223	0.06	6,506	1.47	6,187	1.64	8,925	3.06
파 라 핀	0.1	0.19	28.4	2.33	70	0.99	90	0.40	290	1.04	—	—	—	—	—	—	—	—	—	—
원 면	—	—	—	—	—	—	—	—	—	—	20,145	5.90	25,007	6.48	26,887	6.08	31,686	8.38	30,768	10.55
유 연 탄	—	—	—	—	—	—	—	—	—	—	28,581	8.37	24,661	6.39	20,220	4.57	15,362	4.06	8,994	3.08
항 생 재	0.6	1.15	57.6	4.73	138	1.96	384	1.72	211	0.76	—	—	—	—	—	—	—	—	—	—
석 유 류	—	—	—	—	—	—	—	—	—	—	—	—	—	—	—	—	—	—	—	—
비 료	—	—	—	—	197	2.80	1,889	8.44	637	2.29	48,233	14.13	58,261	15.09	58,935	13.33	45,969	12.16	48,049	16.47
신문용지	2.1	4.03	79.2	6.50	155	2.20	244	1.09	776	2.79	3,514	1.03	3,917	1.01	4,743	1.07	3,994	1.06	1,777	0.61
인쇄용지	0.5	0.96	56.6	4.65	221	3.14	350	1.56	596	2.15	—	—	—	—	—	—	—	—	—	—
모 사	0.6	1.15	133.3	10.94	111	1.58	186	0.83	15	0.05	9,107	2.67	9,287	2.41	4,545	1.03	1,881	0.50	88	0.03
인 견 사	—	—	—	—	—	—	—	—	—	—	7,306	2.14	8,054	2.09	6,715	1.52	8,488	2.24	9,684	3.32
면 직 사	4.9	9.40	92.4	7.58	66	0.94	262	1.17	—	—	—	—	—	—	—	—	—	—	—	—
시 멘 트	0.1	0.19	0.1	0.01	—	—	198	0.89	204	0.73	1,975	0.58	5,442	1.41	5,437	1.23	6,516	1.72	1,055	0.36
판 유 리	3.7	7.10	17.4	1.43	50	0.71	299	1.34	248	0.89	—	—	—	—	—	—	—	—	—	—
철 광 재	0.3	0.58	15.6	1.28	76	1.08	463	2.07	998	3.59	579	0.17	1,905	0.49	4,423	1.00	5,170	1.37	4,097	1.40
섬유기계	0.5	0.96	2.9	0.24	35	0.50	161	0.72	441	1.59	6,445	1.89	5,953	1.54	5,166	1.17	5,984	1.58	5,925	2.03
輸入총액	***52.1***	***100***	***1,218***	***100***	***7,044***	***100***	***22,370***	***100***	***27,785***	***100***	***341,415***	***100***	***386,063***	***100***	***442,174***	***100***	***378,165***	***100***	***291,709***	***100***

資料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경제년감

輸出增大→輸出產業의 建設→수출을 통한 建設이라는 古典的인 成長 메카니즘이 발동하지 않았음은 물론 輸出能力은 커지지 않고 輸入需要는 일방적으로 충족되는 가운데 國際經濟的인 접촉을 상실하여 國際經濟社會에서의 獨立과 特定國에의 偏重依存을 결과하고 말았으며 片務的으로 제공되는 援助수입을 하는 가운데 경제는 歪曲되고 결국에는 依存經濟化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것은 그후에 있어서의 自主的 自立的 經濟建設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수있다.

同期間에 輸出入內譯은 〈表-1〉에서 보는바와 같이 2千萬弗內外의 輸出水準을 유지하였으며 대신 輸入은 46년의 6千萬弗에서 57年에는 442,174千弗에 이르기까지 增減幅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물론 6·25動亂이라는 비참한 전쟁을 치르는 동안 自律的인 經濟政策을 세우지 못했고 오로지 美國으로부터 救恤的인 목적을 위하여 또 戰後 復舊建設 등을 위해서 1945—59년간에 2,690,354千弗이나 되는 막대한 金額의 원조를 받아온 형편이므로 產業發展에 기여하지 못한 것이었다. 日帝下에 세워진 약간의 產業建設은 물론 住宅까지 대부분이 空暴 및 砲火로 消滅되었고 放棄하는 戰爭罹災民에게 빵과 救護衣服을 공급하는 문제가 時急했던 것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45—1959年 사이에 받은 美國의 원조가 勿驚 2,690,354千弗이며 이는 1人當 年平均 9.06弗이나 되고 특히 戰爭이 끝난 1955—58年간은 1,247,686千弗이 원조되었고 이는 年平均으로 하면 311,922千弗이었으며 年平均 1人當의 援助수입액으로 보면 13.94弗로서 마샬원조계획기간중에 西歐에 投入된 美國援助보다 1.94弗이나 많은 것이었다. 戰後 유럽의 奇蹟的인 復興을 가져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마샬計劃에 의한 對西歐經濟援助가 3年만에 年平均 1人當 12弗이었다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받은 援助金額 26億9千萬弗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으며 이를 부분적이나마 基幹產業 육성에 投下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시책이었다고 할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表-2〉에서 나타나듯이 동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입한 품목은 쌀, 보리, 石油類, 肥料, 新聞紙, 人絹糸, 시멘트, 板유리 등 一次產品이 대부분이며 이의 수입을 위해서 부족되는 外貨를 충당하는데 援助資金이 사용된 것이었다.

또 同期間 동안에 輸出依存度를 보면 〈表-3〉에서 보듯 평균 1.18%라는 낮은 數値였으며 이는 당시의 經濟政策이 輸出에 대해서 配慮가 없었다는 증거이다.

<表 3> **貿易依存度의 推移 (1947—59)**

	G N P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무역의존도
	百萬圓	%	%	%
1947	4,545	0.24	16.92	17.16
1948	6,641	1.08	17.56	18.46
1949	8,800	1.28	13.59	14.87
1950	22,834	1.43	4.85	6.28
1951	55,430	0.83	7.00	7.83
1952	121,962	1.60	13.63	15.23
	百萬弗			
1953	1,539	2.57	22.44	25.01
1954	1,639	1.47	15.15	16.92
1955	1,735	1.04	19.68	20.72
1956	1,815	1.36	21.27	22.63
1957	2,035	1.09	21.73	22.82
1958	2,174	0.76	17.39	18.15
1959	2,216	0.89	13.71	14.60
평 균		**1.20**	**15.76**	**16.96**

자료 : 1947~1952, 產銀, 產業經濟10年史 p. 529. 1953
이후는 韓國 國民所得年報, 1969年版 및 經濟統計年報 各年號서 作成

同期間에 輸出商品의 구조를 보면 水產物과 鑛產物 그리고 農產物 등 1차 產品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寒天, 乾魚, 魚肝, 사과, 배, 모리브덴, 黑鉛, 螢石, 漆器, 刺繡, 生絲, 毛皮, 人蔘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1차產品과 2차產品으로 나누면 〈表-4〉에서 보듯 1차產品이 90%, 2차產品이 10%內外의 비율이다. 이는 당시 南韓에는 產業施設이 거의 없었고, 간혹 있다 하여도 工產品 특히 生活必須品의 수출은 오히려 규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同期의 國別 地域別 貿易構造를 보면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國際活動의 뒤안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船舶 등 國際經濟的인 社

<表 4> 商品別輸出變動 (1, 2次商品別) 단위 : {1946—54 百萬圓 / 1955—59 千弗

	第一次產品			第二次產品			商品輸出總額	
	金額	成長率(%)	構成比	金額	成長率(%)	構成比	總額	構成比
1946	0.43		91.49	0.04		8.51	0.47	100
47	8.41	855.81	75.70	2.70	6,650.00	24.30	84.11	100
48	57.83	587.63	80.39	14.11	422.59	19.61	71.94	100
49	102.05	76.47	90.56	10.64	△24.59	9.44	112.69	100
50	306.59	200.43	94.12	19.14	79.89	5.88	325.73	100
51	442.73	44.40	96.43	16.40	△14.32	3.57	459.13	100
52	1,817.95	310.62	93.51	126.19	669.45	6.49	1,944.14	100
53	3,551.14	95.34	89.59	412.84	227.16	10.41	3,963.98	100
54	5,946.00	67.44	89.13	725.00	75.61	10.87	6,671.00	100
55	16,289.	173.95	90.67	1,677.	131.31	9.33	17,966.	100
56	22,114.	35.76	89.91	2,481.	47.94	10.09	24,595.	100
57	18,000.	△18.60	81.07	4,202.	69.37	18.93	22,202.	100
58	13,498.	△25.01	82.05	2,953.	△29.72	17.95	16,451.	100
59	16,771.	24.25	87.52	2,391.	△19.03	12.48	19,162.	100

註 : 第一次產品 : SITC, 0~4 第二次產品 : SITC 5~9
자료 : 한은 경제연감 및 경제통계연보

會間援資本의 마련이 적어 활발한 對外活動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地理的으로 가까운 국가를 重要交易對象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國民총생산의 규모가 작다는 것과 아울러 50년대 무역을 기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

<表 5> 偏重된 輸出市場構造 (1950~59)

(괄호안은 %) 단위 : {1950~54 百萬圓 / 1955~59 千弗

1950	325.7	日	245.9 (75.5)	홍콩	61.8 (18.9)	美	15.9 (4.8)	合計 99.2%
1951	459.1	日	383.6 (38.5)	美	38.2 (8.3)	홍콩	36.6 (7.9)	99.7%
1952	1,950	日	1,054 (54.0)	美	646 (33.1)	〃	235 (12.0)	99.1%
1953	3,987	美	1,906 (47.8)	日	1,497 (37.5)	〃	487 (12.2)	97.5%
1954	6,675	美	3,757 (56.3)	日	2,199 (32.9)	〃	607 (9.9)	99.1%
1955	17,966	美	7,361 (40.9)	日	7,253 (40.4)	〃	1,852 (10.3)	91.6%
1956	24,595	美	10,912 (44.4)	日	8,146 (33.1)	〃	1,934 (7.8)	85.3%
1957	22,202	日	10,820 (48.7)	〃	4,094 (18.4)	〃	3,822 (17.2)	84.3%
1958	16,451	〃	9,778 (59.4)	〃	2,859 (17.4)	〃	1,274 (7.7)	84.5%
1959	19,162	〃	12,671 (66.1)	〃	2,150 (11.2)	〃	1,023 (5.3)	82.6%

자료 : 한은, 경제연감 1957年版 및 經濟統計年報 1960年版서 作成

음을 알수있다. 뿐만 아니라 援助에 의한 수입 중심의 무역을 하는 가운데 자연히 한국무역의 흐름은 政治的 親疎에 의해서 규제받게 되었다.

〈表-5〉를 보면 日本, 美國, 홍콩이 항상 수출시장의 80%이상을 占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알수 있다.

이상에서 대략 훑어 본바와 같이 1945—59년까지의 우리나라 경제는 美國의 원조에 의하여 지탱되어온 經濟構造였으며 資本材와 原資材 그리고 技術까지도 外國援助에 의하여 마련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國內產業의 고도화나 輸出指向政策을 세울수가 없었던 것이다. 軍事費調達 아니면 日用軍用品을 購入 조달하는데 막대한 援助資金이 사용되었던 것이며 이로 인한 病弊가 1958년 이후의 援助의 격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니 즉 이 援助依存的 우리나라 경제는 스스로 지탱할 힘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60년대는 輸出을 통한 성장이라는 불가피한 길을 고난에 찬 가운데 걸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3) 60年代의 우리나라 貿易成長

(1) 輸出入動向과 貿易收支

前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0年代는 50年代 후반 美國援助가 격감됨에 따라 이에 충당할 對外支拂手段을 수출에 의하여 공급받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輸出振興計劃이 정부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였던 것이며, 마침 4·19義擧後의 民主黨 政權, 그 후의 共和黨政權에 의해서 의욕적인 經濟開發計劃이 추진된 연대이다. 다행히 61년부터 시작된 經濟開發第1次 5個年計劃은 66년에, 67년에 시작한 第2次5個年計劃은 71년에 끝날 예정인바, 이 기간에 우리나라 경제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던 것이다. 많은 外資를 誘致하여 基幹産業工場을 세워 輸入代替를 기하는 한편 輸出振興政策을 강력히 추진하는 輸出主導型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었다.

<表 6> 우리나라貿易收支推移

(單位 : 百萬弗)

貿易收支 / 年度	輸 出	輸 入	貿易收支	輸入에對한輸出比
1952	27.7	241.2	—186.4	11.5%
1958	16.5	378.2	—361.7	4.4
1960	32.8	343.5	—310.7	10.0
1961	40.9	316.1	—275.3	12.9
1962	54.8	421.8	—367.0	13.0
1963	86.8	560.3	—473.5	15.5
1964	119.1	404.4	—285.3	29.5
1965	175.1	463.4	—288.3	37.8
1966	250.3	716.4	—466.1	34.9
1967	320.2	996.2	—676	32.1
1968	455.4	1,468.2	—1,012.8	31.0
1952~1968 伸張率%	16.440	6.087	—	—
1961~1968 伸張率%	11.135	4.645	—	—

資料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0, 1965, 1969

〈表-6〉에서 보여 주듯이 1961년~1968년의 8년 동안에 總輸出은 무려 11倍이상 증가하여 年平均 成長率 42%에 달했다.

이같은 成長率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빠른 것이었으며 따라서 絕對輸出額도 1968年에는 무려 5億弗이라는 경이적인 증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에 輸入 역시 상당히 增加하였는바 이는 당분간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첫째로 政府의 開發計劃에 의한 급속한 經濟成長과 輸出伸張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資本財 및 生産施設財에 대한 수입이 增大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를 위한 外資導入이 불가피하며 둘째 우리나라와 같이 自然資源形便이나 重化學工業 기반이 취약한 상태하에서는 産業原料와 中間財를 계속 輸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한국 輸出商品 構成의 動向

1953년 이후 1961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輸出商品은 수개의 一次産品으로 주축을 이루어 왔다. 1961년만 보더라도 百萬弗以上을 수출할 수 있었던 품목은 魚介類 生糸 鐵鑛 重石 무연탄 한천 및 合板 등 7個品目에 불과하였으며 이 7個 품목의 수출만도 20,477千弗로서 총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一次産品輸出總額은 總輸出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당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後進國型 輸出構造를 가지고 있었다.

1961년이후 輸出의 급속한 성장은 輸出構造의 현저한 개선과 병행하여 이루어 졌다. 그 간 一次産品의 수출도 착실히 늘어 났지만 그 보다도 매년 새로운 工産品이 輸出品目에 첨가되어 높은 신장률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高率의 수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61년이후 輸出構成의 推移를 보면 工産品比率이 착실히 상승하고 있는데, 즉 1961년에는 工産品輸出이 전체의 20%미만이었으나 1965년에는 一次産品輸出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1968년에는 실로 그 비율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工業製品 輸出國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輸出構造의 特徵的 경향을 보기 위하여 輸出主導品目別로 그 비중과 성격을 보면 〈表-7〉과 같다.

1968년도에 가장 수출실적이 높았던 13개 품목을 一次産品, 輕工業製品 및 機械産業製品 등 3개의 범주에 分類統合하여 우리나라의 國際比較優位産業의 특징적 경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表 7>　　輸出商品構成의 變化　　(單位：千弗)

品目別 \ 年度別	1962 實績	1962 構成比	1965 實績	1965 構成比	1966 實績	1966 構成比	1967 實績	1967 構成比	1968 實績	1968 構成比	1962~1968 伸張率%
一次產品計	44,181	80.6	68,091	38.9	96,488	38.5	604,043	32.7	117,030	25.7	264.9
魚類	8,341	11.2	17,838	10.2	21,673	8.7	26,019	8.4	25,791	5.7	309.2
生糸	3,960	7.2	6,794	3.9	11,562	4.9	14,873	4.6	17,954	3.4	453.4
海苔	749	1.4	3,315	1.9	8,710	3.5	6,498	2.0	13,744	3.0	1,834.9
重石	3,374	6.2	6,356	3.6	9,536	3.8	11,027	3.7	11,115	2.4	329.4
葉煙草	66	0.1	854	0.5	6,469	2.6	6,640	2.1	7,643	1.7	11,580.3
鐵鑛石	3,849	7.0	6,753	3.9	6,090	2.4	6,059	1.9	7,281	1.6	189.2
工產品計	10,632	19.4	106,991	61.1	153,846	61.5	215,386	67.3	338,371	74.3	3,182.6
輕工業製品	8,591	15.7	99,280	56.7	139,865	55.9	193,992	60.6	303,848	66.7	3,536.8
衣類	1,119	2.0	20,713	11.8	33,386	13.3	59,208	18.5	112,232	24.6	10,029.7
合板	2,060	3.8	18,030	10.3	29,880	11.9	36,418	11.4	65,590	14.4	3,184.0
織物類	2,137	3.9	19,811	11.3	23,579	9.4	31,999	10.0	40,985	9.0	1,917.9
假髮類	0	0	2,344	1.3	12,022	4.8	22,724	7.1	35,090	7.7	—
신발類	238	0.4	4,151	2.4	5,467	2.2	8,139	2.5	11,044	2.4	4,640.3
機械產業製品	2,041	3.7	7,711	4.4	13,981	5.6	21,394	6.7	34,523	7.6	1,691.5
電氣機器	106	0.2	1,901	1.1	5,068	2.0	7,364	2.3	18,933	4.2	17,861.3
其他機器	1,935	3.5	5,810	3.3	8,883	3.5	14,030	4.4	15,590	3.4	805.7
總計	**54,813**	**100.0**	**175,082**	**100.0**	**250,334**	**100.0**	**320,229**	**100.0**	**455,401**	**100.0**	**830.8**

資料：韓國銀行，經濟統計年報 1965, 1969

첫째 범주에 속하는 衣類, 合板, 織物, 假髮 및 靴類 等 輕工業製品은 수출실적 순으로 보아 대부분 최상위 品目으로 이 5個 품목이 1962년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었으나 지난 7년간에 무려 66배가 증가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의 量的 확대는 물론 質的 개선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輕工業 제품은 資本보다는 勞動集約的인 생산품으로서 비록 고도화된 產業製品이라고 할 수 없으나 自然資源과 資本이 부족한 나라에서 풍부하고 능률적인 人的資源을 가장 적절히 이용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범주에 드는 機械產業製品은 1962년이후 높은 輸出伸張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電氣機器製品의 수출이 동기간중에 176배나 늘어나는 급격한 上昇勢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었다. 동제품은 1962년에 10萬弗에 불과했으나 1964년에는 1百萬弗線을 넘었고 1966년에는 5百萬弗 그리고 1968년에 무려 1千9百萬弗에 뛰어 올라 수출실적순으로는 衣類, 合板, 織物, 假髮 및 魚類 다음의 6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속한 신장을 보여 줄 수 있었던 것은 1966年부터 電子제품 및 同部品의 수출이 착실히 증가한데서 연유한 것이다. 美國과 日本에서 점차 勞賃水準이 상승함에 따라 電子제품중 勞動力이 많이 필요한 일부 輕電子製品은 우리나라와 같이 知的 人力이 풍부한 나라에 委託加工 및 생산하여 재수입하는 경향이 점차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魚類, 生糸, 海苔, 重石 및 鐵鑛石, 葉煙草 등 세째 범주의 일차 수출產品을 보면 1962년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였으나 1968년에는 18.1%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들 一次產品 輸出의 절대액은 동기간중에 6倍이상으로 착실히 신장함으로써 1968년에는 7千4百萬弗에 달하여 아직도 外貨獲得源으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은 그 구성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이 점차 工產品으로 옮겨감에 따라 수출품이 상당히 多樣化되고 있지만 先進工業國의 예에서와는 달리 工產品輸出構造가 輕工業製品에 편중되어 있어 國內工業構造나 기

술의 脆弱性을 반영시켜 주고 있다.

즉 1968년도 輸出實績에서 약 66%를 차지했던 主導工產品의 성격을 보면 前述한 바와 같이 第1범주에 드는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이 大宗을 점하여 전체 수출에 대하여는 58%를 그리고 總工產品輸出의 7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한편 비교적 資本集約的인 機械產業製品은 비록 電氣機器의 신장률이 빨랐으나 그 비중으로 볼 때 총수출의 7.6%, 總工產品 輸出의 10%내외를 차지하는 매우 낮은 水準이었다.

(3) 地域別 輸出 動向

1950년대는 물론 196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日本이 우리나라 상품의 최대 市場이었다. 1960年의 地域別 輸出先을 보면 日本이 總輸出의 67%를 흡수했는데 이는 당시 輸出商品構成이 一次產品을 주축으로 하였고 그 대부분을 日本에 수출했기 때문이었다.

美國과 홍콩이 日本 다음으로 한국의 큰 수출시장이었는 바 20%정도였으며 나머지는 中國과 싱가포르 등 東南亞 數個國과 英國, 西獨, 벨지움 등 西歐의 數個國에 少量 판매되었다.

이와 같이 지역별 수출구조는 1961년부터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여 1965년에 이르러서는 美國이 韓國商品의 최대시장으로 등장했으며 1968년에는 무려 총수출의 52%를 흡수했다. 日本에 대한 우리나라 商品의 진출도 그간 활발히 伸張했으며 특히 韓國國交가 정상화되 1966年부터는 빠른 상승률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 우리나라의 수출상품구성에 급진적인 변동이 일어남에 따라 工產品수출시장인 美國과 西歐羅巴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장률을 보인 반면 一次產品을 주축으로 한 對日수출의 비중은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 1960—68년 기간중에 對日수출이 약 5倍가량 증가했지만 對美輸出은 무려 65배가 증가했고 對西歐羅巴輸出도 약 9배가량 증가 했다.

또한 1962년 이후 工產品수출이 착실히 성장하여 1965년부터 工產品 위주의 輸出을 하면서부터 地域別市場도 상당히 多邊化되었다. 1960년에 우리나라 商品이 수출된 국가가 19個國,

<표 8> 主 要 國 別 輸 出 推 移 (單位 : 千弗)

年度 / 金額 / 地域	1960		1962		1965		1966		1967		1968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總 額	**32,827**	**100.0**	**54,813**	**100.0**	**175,082**	**100.0**	**250,334**	**100.0**	**320,229**	**100.0**	**455,401**	**100.0**
ASIA 地域	23,882	72.8	35,703	65.1	85,757	49.0	104,836	41.9	129,143	40.3	151,944	33.4
(日 本)	20,175	61.5	23,483	42.8	43,974	25.1	66,293	26.5	84,723	26.5	99,744	21.9
(中 國)	384	1.2	1,354	2.5	1,942	1.1	2,075	0.8	3,104	1.0	5,750	1.3
(홍 콩)	2,726	8.3	4,982	8.5	10,833	6.2	9,489	3.8	15,215	4.8	15,664	3.4
(타 이)	89	0.3	405	0.7	4,291	2.5	4,754	1.9	5,641	1.8	5,540	1.2
(베 트 남)	45	0.1	830	1.5	14,782	8.4	13,843	5.5	7,348	2.3	5,265	1.2
(싱 가 폴)	435	1.3	415	0.8	2,201	1.3	2,512	1.0	4,142	1.3	10,749	2.4
유 럽 地 域	4,300	13.1	6,298	11.5	21,397	12.2	34,148	13.6	33,184	10.4	36,272	8.0
(스 웨 덴)	0	—	228	0.4	5,137	2.9	9,832	3.9	8,035	2.5	5,487	1.2
(영 국)	1,889	5.8	1,632	3.0	3,592	2.1	5,066	2.0	7,883	2.5	7,026	1.5
(화 란)	15	0.05	724	1.3	3,900	2.2	4,262	1.7	3,664	1.1	6,221	1.4
(벨 기 에)	1,957	5.1	251	0.5	3,308	1.9	4,169	1.7	3,507	1.1	1,994	0.4
(서 독)	632	1.9	244	0.4	3,191	1.8	6,975	2.8	5,286	1.7	9,632	2.1
(이 태 리)	5	0.02	1,972	3.6	1,180	0.7	1,243	0.5	1,087	0.3	1,597	0.4
북아메리카地域	3,647	11.1	12,121	22.1	64,463	36.8	102,055	40.8	146,026	45.6	250,943	55.1
(미 국)	3,647	11.1	11,976	21.9	61,695	35.2	95,782	38.3	137,431	42.9	235,402	51.7
(카 나 다)	—	—	142	0.3	2,542	0.7	5,765	2.3	7,914	2.5	14,165	3.1
其 他 地 域	998	3.0	691	1.3	3,465	2.0	9,295	3.7	11,876	3.7	16,242	3.6

資料 : 韓國銀行, 統計年報 1965, 1969

그리고 輸出量으로 보아 100萬弗以上 수출했던 국가는 日本, 美國, 英國, 홍콩, 벨기에 등 5個國에 불과했으나 1968년에는 總輸出國이 85개국으로 늘어났으며 6大洲에 안가는 곳이 없게 되었고 100萬弗이상 수출된 나라數도 상당히 늘어나 21個國에 달했다.

1960年代에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이 상당히 多邊化되어 왔지만 주도적인 海外市場은 역시 美國과 日本이었다. 과거 15년 동안의 地域別 輸出比重을 보면 對越輸出이 높았던 1965년만을 제외하고는 계속 美國과 日本 兩國에 대한 수출이 總輸出의 60%이상을 점유했으며 1967년부터는 70%에 달하고 있다.

美國에 대한 수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모두가 工產品으로 衣類 合板 假髮 및 靴類 등이 主軸을 이루었다. 이 5個 품목만도 1968년에 170百萬弗로 對美輸出總額의 약 70%를 점하고 있다.

이와같이 美國은 한국의 주요 輸出市場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풍부하고 低廉한 勞動力으로 생산할 수 있는 新規工產品을 소비해 주는 최대 輸出市場이었다.

다음으로 日本은 주로 一次產品의 수출국이었으므로 매년 輸出 絕對値는 증가되어도 相對値는 우리나라 수출伸張率을 따르지 못하였다. 이는 日本 자체내의 수입제한 조치도 있지만 一次產品은 그 생산이 需要와 技術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伸縮性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66년부터는 韓日國交가 정상화됨에 따라 兩國間에 經濟協力이 활발히 진전되었고 工產品의 對日수출도 착실히 신장되었다.

또한 西歐諸國에 대한 輸出도 그간 상당히 증대되고 있다. 즉 西歐諸國은 所得水準이 높은 先進工業國으로 開發途上國家에 방대한 시장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英國, 西獨, 화란, 스웨덴이 對韓輸入實績으로 上位구룹이며 佛蘭西, 伊太利, 벨지움도 韓國상품의 훌륭한 市場으로 점점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EEC와 EFTA 등 歐洲兩大經濟共同體에서 域外輸入에 대한 貿易障壁을 점차 제거한다면 한국의 國際比較優位 產業製品은 歐洲市場에 크게 진출될 것이 예상된다.

(4) 世界貿易에 있어서 韓國輸出의 위치

1962년부터 1968년까지 7개년간에 우리나라는 總貿易量이 4배 이상 늘어나 1,923.6百萬弗이 증가하였으나 세계의 貿易量은 약 70%가 증가한 4,377億弗에 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무역 신장이 同期間 동안에 世界伸張率을 훨씬 앞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 수출의 世界市場 占有度를 보면 1962년에 0.04%, 1968년에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美國의 경우를 보면, 1962년에는 韓國商品의 진출이 매우 低調하여 美國의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0.068%에 불과했었으나 1968년에는 10배가량이나 증가한 0.65%에 달했다. 日本市場에 대한 한국商品의 점유비율도 그간 착실히 성장하여 1962년의 0.4%에서 1968년에는

<表 9> 世界輸入에서 占하는 韓國輸出의 比重 (單位 : 百萬弗)

對象地域 \ 年度 比重	1962			1968		
	總輸入(A)	韓國輸出(B)	B/A	總輸入(A)	韓國輸出(B)	B/A
世界總計	132,500	54.8	0.041	224,800	455.4	0.203
先進國計	101,380	42.1	0.042	179,950	390.7	0.217
後進國計	31,120	12.7	0.041	44,850	64.7	0.144
아세아洲	20,397	35.7	0.175	35,000	151.9	0.434
日本	5,637	23.5	0.417	12,990	99.7	0.768
유럽洲	66,696	6.3	0.009	110,268	36.3	0.033
北美洲	26,277	12.1	0.046	48,487	250.9	0.518
美國	17,783	12.0	0.067	36,019	235.4	0.654

資料 : UN Year 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1967

0.77%로 상승했고, 西歐諸國에 대한 시장점유율도 1962년의 0.009%에서 1968년에는 0.033%로 올랐다. 이상 先進國에 대한 韓國輸出의 점유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한국의 對後進國輸出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韓國輸出의 전세계의 市場占有率은 〈表-9〉에 나타났듯이 보잘것 없는 것이다.

(5) 結　論

이상에서 60년대 韓國貿易 특히 수출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내용을 여러모로 훑어 보았거니와 아직도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 및 一次產品이 수출에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는 美國과 日本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점 등 70년도의 진전을 위해서 너무나 불안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외에도 세계의 經濟사정은 時時刻刻으로 突變하고 있으며 서로가 市場確保를 위해서는 人情도 체면도 없는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것이다. 즉 銃과 칼로써 피를 강요하지 않을 뿐 그 이상의 가혹성이 貿易戰爭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요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勝利로 이끌도록 정책을 세우고 현실에 대비하느냐 하는 문제가 眞摯하게 硏究檢討되고, 순간이라도 한눈 팔지 않고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60년대의 성과를 70年度에는 기필코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그렇다.

(4) 70年代의 우리나라 貿易의 座標

(1) 槪　要

高度所長과 輸出伸張은 60년대의 韓國經濟가 이룩한 兩大支柱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높은 輸出 伸張率은 지속적인 高度成長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 되고 있음은 물론 長期的인 안목으로 볼때 輸出立國은 바로 韓國經濟가 지향해야 할 진로라고 단언할 수 있다. 貧弱한 賦存資源과 技術不足에도 불구하고 高度成長政策을 추진하는데는 產業開發에 필요한 輸入需要의 급속한 증대도 불가피하였다. 즉 40%가 넘는 輸出伸張을 가져오게한 밑거름으로는 1·2次經濟開發計劃에 의한 財政 및 商業借款 19億3千5百萬弗에 달한 外資導入이 크게 寄與하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줄 안다. 그외에도 어린 覇氣에 찬 輸出伸張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相乘的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여하간에 우리는 60년대의 이 귀중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70년대의 35億弗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世界무역량의 1%를 우리가 점유하여 名實相符하게 上位中進國으로 이끌지 않으면 안될 立場에 있는 것이다.

輸出伸張을 통한 外貨需給의 自給自足은 貿易의 逆調, 財政 및 商業借款의 償還問題와 결들여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3次5個年經濟開發計劃의 全貌

自立經濟를 달성하기 위하여 3次經濟開發計劃은 여러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중 우리 경제 현실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의 5가지라고 생각된다. 즉 ① 年平均 8.6%의 國民所得의 성장을 이룩하고 ② 海外貯蓄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며 ③ 貿易收支面에서 黑字를 나타내게 함으로써 國際收支의 赤字를 불식하고 ④ 重工業의 輸入代替를 기하고 ⑤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糧穀의 自給自足을 기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여러가지 목표가 제시되고 있으나 위의 5大 항목에 비하면 비교적 枝葉的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목표를 1, 2次5個年計劃에 입각한 60년대의 經濟發展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과 비교해 보면 3次計劃이 지향하는 목표는 과거에 있어서 보지 못하였던 質的인 전환을 우리경제가 3次計劃기간 동안에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貿易收支의 黑字를 나타내므로 國際收支의 赤字를 없애는 3항 貿易政策에 대하여서만 논하고저 한다.

國際收支의 黑字誘導는 3次計劃의 焦點이기도 하다. 貿易收支의 赤字拂拭은 즉 自立經濟의 달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表-10〉에서 보면 72년의 輸出增加率을 33%로 잡고 76年度에는 18%로 漸減하여 35億1千萬弗을 輸出目標로 설정하고 대신 수입은 28億6千2百萬弗로 유도하여 최종연도에 무려 6億5千百萬弗의 黑字가 되도록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表 10> 수출구조별·연도별 추이 (단위 : US$백만)

용 \ 연도 / 구분	1969		1972		1973		1974		1975		1976		1972—76 연평균증가율	1967—71 연평균증가율
	금액	구성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총 액	658	100.0	1,680	100.0	2,100	100.0	2,521	100.0	2,975	100.0	3,510	100.0	22.8	34.0
증 가 율	35.4	—	33.0	—	25.0	—	20.0	—	18.0	—	18.0	—	—	—
농 산 품	28	4.2	42	2.5	49	2.3	57	2.3	64	2.2	74	2.1	15.3	16.4
수 산 품	62	9.4	102	6.1	126	6.0	149	5.9	170	5.7	186	5.3	13.3	22.8
광 산 품	49	7.4	55	3.3	59	2.8	54	2.1	57	1.9	60	1.7	3.1	9.1
공 산 품	519	79.0	1,481	88.1	1,866	88.9	2,261	89.7	2,684	90.2	3,190	90.9	23.3	48.0
공산품합계	519	100.0	1,481	100.0	1.866	100.0	2,261	100.0	2,684	100.0	3,190	100.0	23.3	48.0
증 가 율	43.5	—	31.8	—	26.0	—	21.2	—	18.9	—	18.7	—	—	—
중공업제품	152	29.2	520	35.1	689	36.9	895	39.6	1,114	41.5	1,394	43.7	34.0	—
경공업제품	367	70.8	961	64.9	1,177	63.1	1,366	60.4	1,570	58.5	1,796	66.3	17.8	—

자료 : 경제기획원

<表 11> 상품류별 장기 수출계획 (단위 : US$백만)

유 별	유 별 명	69년실적	70년실적	72년목표	73년목표	74년목표	75년목표	76년목표
0	식료품및산동물	86 (12.2)	108 (10.8)	137 (8.1)	169 (8.0)	199 (7.7)	229 (7.4)	255 (7.1)
1	음 료 및 연 초	18 (2.6)	17 (1.7)	27 (1.6)	30 (1.4)	33 (1.3)	35 (1.1)	38 (1.1)
2	비 식 용 원 재 료	86 (12.2)	113 (11.3)	133 (7.9)	158 (7.5)	173 (6.7)	193 (6.3)	212 (5.9)
3	광물성 연료 윤활유	5 (0.7)	28 (2.8)	8 (0.5)	9 (0.4)	10 (0.4)	12 (0.4)	13 (0.4)
4	동식물성유지류	0.5 (0.1)	— (—)	0.3 (—)	0.5 (—)	0.8 (—)	1.1 (—)	1.4 (—)
5	화 학 제 품	20 (2.8)	22 (2.2)	45 (2.7)	66 (3.1)	91 (3.5)	108 (3.5)	126 (3.5)
6	원 료 별 제 품	216 (30.7)	308 (30.7)	459 (27.3)	557 (26.3)	664 (25.7)	769 (25.0)	882 (24.6)
7	기계류및운반기계류	51 (7.3)	66 (6.6)	225 (13.4)	338 (16.0)	459 (17.8)	587 (19.1)	746 (20.8)
8	잡 제 품	220 (31.3)	342 (34.1)	647 (38.5)	792 (37.4)	953 (36.9)	1,129 (36.7)	1,305 (36.4)
	합 계	**703** (100.0)	**1,004** (100.0)	**1,682** (100.0)	**2,119** (100.0)	**2,583** (100.0)	**3,075** (100.0)	**3,588** (100.0)

자료 : 상공부 장기수출계획
주 : ( )내 수자는 구성비(%)임.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76년에 工産品輸出의 비중을 91%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중 重工業製品은 43.7%, 輕工業製品은 66.8%로 책정되어 있어 輸出構造의 高度化를 계획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一次産品이나 輕工業製品만의 신장으로는 35億弗의 目標達成이 용이한 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3次計劃기간에는 重化學工業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이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 그러면 重化學工業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3次 5個年계획기간 동안에 綜合製鐵工場을 완성함으로써 粗鋼의 생산을 3.5倍 증가시키고 鑄物用 銑鐵 및 特殊鋼工場을 건설하여 機械業에 소요되는 資材의 自給을 기하고 공업기계를 69년에 4.6배 造船施設을 8.3배로 각각 증가시키고, 電子工業을 開發促進하고, 石油化學工場을 건설 확대하는 등 重工業 건설에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問題가 되는 것은 工場建設도 중요하지만 이의 效率性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重化學工業은 資本集約的인 산업이면서 이의 제품이 다른 공업의 원료가 되는 것인바, 不實한 重工業을 건설하여 외국에 비해 기술도 낙후하고 零細規模 때문에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國民經濟에 半永久的인 고질을 안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3) 美國 中共의 接近

금년들어 美國과 中共의 접근이 東西의 解氷무드를 몰고와 앞으로는 東西貿易이 한층 활기를 찾을 것 같다.

핑봉外交로부터 시작된 美國의 中共接近은 7億人口를 포함한 방대한 시장을 확보한다는 의미만으로 어제의 敵對關係가 오늘의 親善關係로 급변하고 만 것이다. 이것이 貿易戰爭의 일면이 아닌가 한다. 日本 또한 적극적으로 中共과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금후 世界貿易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美國 日本 등 自由陣營이 中共과 교역을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美國 日本 등 自由陣營의 시장이 浸蝕될 우려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核을 이루는 것이 輕工業製品인데 中共 역시 현재 수출할수 있는 상품이 輕工業製品이라는 점에서 中共이 dumping할 경우 우리의 시장이 교란당할 것은 不問可知의 사실이다.

이는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중대사태이며 이에 대한 만반의 對備策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소 樂觀하고 싶은 것은 中共이 人的 資源이 豊富하다 하여도 우리나라나 台灣과 같이 熟練된 技能工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적어도 우리는 中共에 몇년 앞서는 人的 資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經營을 보다 합리화하여 原價切下를 단행하여야 함은 물론 輸出商品을 보다 高級化하여 제값을 받으며 시대와 유행에 민감하게 접근하는 新規開發商品으로 中共의 덤핑에 機先을 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美國의 中共進出前進基地로 한국이 有望하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어느 정도 信憑스러운 것인지 알수 없으며 설혹 이것이 사실이라면 政府에서는 이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가해 필요 適切한 對應策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結　論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3次5個年計劃이 끝나는 1976년에는 輸出 35億1千萬弗을 달성해야 할 숙명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成長度로 미루어 보아 필요한 노력만 가한다면 능히 高地를 점령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上位中進國으로 가슴을 펴게 될 것이며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歷史의 포물선의 모양이 달라 질 것이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35億1千萬弗의 高地를 향해 전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글을 끝내고저 한다.

첫째 輸出産業을 중심으로 한 産業構造를 하루 속히 高度化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機械産業製品(Engineering products)을 수출할 수 있는 重化學工業으로의 移行이 요망되고 있다.

둘째 國際比較優位原則에 입각한 輸出産業을 육성하여 國際競爭力을 강화하여야 하며

세째 과감한 技術導入과 개발로서 高價品의 生産, 優良商品의 생산이 요망된다.

네째 적극적인 海外市場의 開拓 및 정확한 시장의 조사가 요망된다. 美國, 日本의 편중된 시장에서 歐洲, 阿洲, 東南亞, 南美, 大洋洲까지 시장의 漸進的인 확대가 時急하다. 이는 국가기관이 맡아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歐洲 및 東歐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和蘭의 로텔담에 설치한 保稅倉庫(Central Terminal Station)는 韓國輸出振興株式會社가 맡아서 運營管理하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를 擧揚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企業經營의 合理化를 통한 原價調整, 量보다도 質에 치중하는 企業風土의 개선이 소망스럽다.

여섯째 정부의 輸出支援策의 합리적인 補強이 요망된다. 1970년의 10億弗의 輸出目標達成도 정부의 지원이 없었던들 어려 웠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때 그때 타당한 政府支援策이 기대되는 바이다.